

코스피	코스닥
2483.42 (+13.01)	717.77 (+6.02)
금리 (한국예 9년)	환율 (원·달러)
2.362 (-0.023)	1423.60 (+4.70)

현대차그룹
연비 45% 개선된
HEV기술 공개
02



韓美 통상담판 초읽기… 대선정국 속 ‘졸속타결’ 우려

국내 대선시기 맞물려 협상 부담
野 “합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최상목·안덕근 vs 美재무·상무
2+2 협상팀, 이번주 회동 예상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담판이 며칠 뒤 시작된다. 미국은 앞서 가진 일본과의 첫 협상에서 신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6·3 대선이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에 새 정부 출범 이전의 합의는 큰 부담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장 등장 여부도 관심이지만, 그가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달 상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매일 상호관세의 유예기간을 90일간 두겠다고 했다. 7월 상순까지다. 6월 초 선출될 새 한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몇 주 내 방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선언될 수도 있다. 다만 7월 상순 기한을 맞추기엔 내각·실무진 구성 등의 시일이 촉박하다. 이에 상대국 정치 여건에 대한 미국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마주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국 관세 수위를 발표한지 약 3주 만이다. 협상장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동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장관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25분 출국 예정이고, 협상 일자는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새벽)로 잡

힐 전망이다. 현지에서 날을 넘겨 24일에 열릴 수도 있다..

우리 측 문제 중 하나는 최 부총리의 임기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 장관도 마찬가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 출마할 시 최 부총리는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르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더해민주당은 이른바 ‘졸속협상’ 가능성을 띄우고, ‘최종 합의’ 등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대선일 이전에 타협안이 도출되는 경우라도 추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미국 측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를 대가로 다른 사안까지 요구해 올 수 있다.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은 물론, 국방(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안을 비롯해 남북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지난 16일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등과 75분간 회동했다.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비, 그리고 공정무역” 등을 협상하기 위해 온다”며 본인이 협상에 직접 나선다고 기습 발표했다. 협상 직후에는 “방금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났고 큰 영광이다.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썼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자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내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20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여행객들이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다. 의견청취안은 현재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시스

m-커버스토리

네이버·컬리도 손 잡았다 생존위한 ‘실리동맹’ 확산

새판 짜는 이커머스

불확실성 속 전략적 제휴 러시
中 저가공세에 생존경쟁 심화



대내외 위기 변수에 맞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서로 간 실리 동맹을 맺으며 새판짜기에 나서고 있다. 불확실한 정치·경제 변수로 홀로서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20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와네이버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이커머스 강화에 나선다. 이로써 올해 안에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컬리의 신선식품 및 생필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컬리와 손을 잡은 것은 이커머스 핵심 분야인 신선식품 부문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애플리케이션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오픈하고,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컬리 역시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과 협업으로 판매 채널 확대 및 강화에 나서겠다는 셈법이다. 컬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2조 1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이어 온 적자 기조를 탈피하진 못했다.

반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날인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총사용자 23만 9000명을 기록하며, 단숨에 이커머스 시장을 석권했다. 출시한 지 4일도 되지 않아, 순식간에 약 24만 명의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컬리 관계자는 “이번 네이버와의 협업으로 컬리는 단기간에 대규모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군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판매 채널이 네이버로 확장되면서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이 ‘적과의동침’을 선택하며 위기 돌파 전략을 세웠다. 당시 양측이 협업을 통해 기대한 핵심 효과 역시 판매 채널 확대였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생활비 모자라 대출’… 4월 가계대출 2.5조 ↑

5대 은행 가계대출 741조 509억
신용대출, 45개월來 최대폭 증가

이달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심화하며 생활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로 증시가 급등락하자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1조 509억원으로 지

난달 말(738조 5511억원)과 비교해 2조 4998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잔액은 1월 4752억원 감소한 뒤 2월 3조 931억원, 3월 1조 7992억원 증가했다. 4월 보름간 3월 한달 증가치 가량이 늘었다.

◆주담대 보름 새 1.5조원 증가

그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7조 1823억원으로 지난달 말(585조 6805억원)과 비교해 1조 5018억원 늘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뒤 재지정했다. 이에 따

라 서울시 부동산 매매건수는 1월 3만 2000건에서 2월 6만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매매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 당초 4~5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증가세가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며 “4월 하반기부터는 토하제 해제 영향도 조금씩 대출 계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나경원 “한동훈, 보수통합 위해 후보 그만둘라”… 한동훈 “국민 위해 최선” /사진 뉴시스
▲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아직 결정 안 해”

▲ 여성계 숙원 ‘비동의강간죄’, 대선 공약 등장… 전망은 불투명
▲ ‘윤 어게인’ 창당 유보한 김계리,尹 만나 식사… “윤버지”

▲ 트럼프 행정부, 한국 핵무장 반대 공식화… “NPT 강력 지지”
▲ 한국거래소, 가장자산 극심한 변동성에… 이상 거래 감시 강화